

식품산업 활성화 · 일자리 창출 최선

전북도 · 전북대, '제4회 고용안정 선제대응 위한 패키지 포럼' 비대면 개최

전북도와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8일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패키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전북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이하 '고선포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식품산업 혁신·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전북 식품산업을 채택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선포사업에서 식품산업은 위기산업으로 지정된 자동차제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를 식품산업으로 직종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고용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북 바이오·식품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 우석대 호텔항공관광학과 황태규 교수가 '식품산업, 전북 그리고 일자리'라는 주제로 전북 식품산



전북도와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8일 고용안정 선제대응을 위한 패키지 포럼을 개최했다.

업의 현황과 마케팅 방안, 인적자원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향 등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전북만이 할 수 있는 산업새대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전북을 식품산업의 대표마케팅공간으로 만들어 식품산업

허브로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하림산업, 청년정책조정위원,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 관련 기관에서 참석해 전북 식품산업의 현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뜻을 모았

다.

이정석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전북 기반산업인 식품산업이 고선포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주요 전략산업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장은성 기자

“전북투어패스로 정읍 관광·미술관 즐겨요”

정읍시립미술관 '한국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 연계 관광 상품 개발

전북투어패스 한 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작가의 작품과 정읍의 가을 정치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 기획전시를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전북투어패스 한 장으로 미술관 관람과 내장사를 비롯한 정읍의 대표 관광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상품은 미술관 관람권과 내장사 관광 또는 카페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패키지로 구성했다.

이는 관광객이 가을철 정읍 명소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을 관광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획전시는 박수근, 김환기, 이중섭, 오지호, 백남준 등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49명의 대표 작품 "전북 기반산업인 식품산업이 고선포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주요 전략산업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장은성 기자



원으로 판매하며, 가성비도 놓치지 않았다. 이번 상품은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 네이버, 옥션, 위메프, 티몬 등 10여 개의 온라인 채널 및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미술관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사전 예약 시스템 등으로 관람객을 분산할 계획이다.

유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객이 한곳 더, 하루 더, 한번 더 머물 수 있도록 문화, 공연, 축제 등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전북투어패스의 상품성을 강화해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고등학생 장학생 180명 선정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학권)은 전북도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고자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180명을 선정해 총 7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8일 전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달 31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전북사립 장학생 100명과 희망장학생 8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사립 장학생 100명에 1인당 30만 원, 희망 장학생 80명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사립장학생은 도내 소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특수학교 56명, 특수학급 44명)을 교육감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희망장학생은 도내 고등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성적 70%, 가정형편 30%를 종합해 시·군별 배정인원에 따라 선정한다.

미래인재특기 장학금은 예술, 체육, 기능분야의 우수한 재능을 가진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오는 11월 접수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TF 본격 가동

전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주택관리사협회 등 민간기관 참여 TF 구성 · 운영

전북도가 공동주택 근로자의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3월 '전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폭언, 폭행 등) 금지와 괴롭힘 발생 시 조치(신고 및 보호 등) 사항을 마련했다.

이어, 4월에는 공동주택 단지별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주와 군산지역 아파트 단지와 상생협약 3건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한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단장으로 전북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와 행정기관인 전북도 3개부서(주택건축과, 인권담당관, 기업지원과)가 참여해 구성했다.

9일 첫 회의를 통해 그동안 추진사항과 분야별 역할분담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북도 공동주택 근로자 인식개선 홍보 포스터.

한반기에는 상생협약과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해 휴게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향후 분야별 추진방안으로는 우선 상생협약을 확대 체결하고, 사회적약자인 공동주택 근로자의 노동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또한, 인식개선을 위한 관리사무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을 실시하고, 주말 1회 단위 내 입주민 상호존중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문안을 작성하고 홍보물(포스터, 영상)과 함께 배포한다.

특히, 내년에는 근로자들의 실제 휴식이 가능하도록 휴게시설 정비 및 비품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TF는 향후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업사항 추가 발굴 및 관련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노형수 도 주택건축과장은 "TF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권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김수홍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의 마을주치의 사업비용과 청년사업자 창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20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 1.97km인데 비해 비수도권 시군구의 경우 최대 57.5km로서 29.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까지 겹쳐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해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 주치의제도는 의료기관이 없거



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전문 의료인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한 청년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청년(20~34세) 640만2,844명 중 53.5%인 342만6,214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요 진출 동기가 일자리 부족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김 의원 개정안의 의의가 있다.

김수홍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와 일자리 분야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마을주치의 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기에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올림픽회 권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